

제8대 한 환 교육감 취임사



제 8,9 대 한 환 (초대 민선)

재임기간 : 제8대 (1989.5.6~1993.5.5)
제9대 (1993.5.6~1997.5.5)

오늘 본인이 제8대 본도 교육감에 취임함에 있어 먼저 존경하는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역대 교육감님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기교육에 헌신하신 제7대 박윤섭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경기교육에 대하여 항상 이해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학부모님과 육백만 도민 여러분께 취임의 인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운신의 노력으로 성심성의 말은 바 책무를 수행할 각오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경기교육의 시책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란 기치 아래 전인교육의 충실, 교직사명의 완수, 지원행정의 강화라는 3대 교육지표를 설정 추진하여 왔습니다.

인간의 삶을 가꾸는 교육의 이상과 국가사회의 발전방향, 그리고 경기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여 볼 때, 이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교육지표로서 앞으로도 더욱 역동적으로 달성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편 민족자존과 민주화합의 조국을 건설하고자 온 겨레의 힘을 집결시키고 있는 시대적 요청과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서의 교육의 역할로 보아 교육의 민주화와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는 일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시책발전에도 힘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니고 있는 교육력을 최대한 발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동지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계의 현실을 직시하여 볼 때, 우리는 시급히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공감합니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가족 상호간에 불신과 갈등으로 본의 아닌 교육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은 매우 불행한 일로서 하루 속히 슬기롭고 과감하게 극복하여, 교육이 신뢰를 되찾고 교육질서를 확립함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최우선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육 본연의 소임에 진력하여, 우리의 교육현장이 건전한 교직소명으로 가르침에 전념하는 교사, 바른 가치관과 행동으로 배움에 정열을 바치는 학생, 스승과 제자가 즐겁게 만나는 학교로 그 모습을 달리할 때, 인간형성의 도장으로서 전통과 특성이 있는 내 고장 학교가 이룩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교육연구, 교육실천 등 모든 교육분야에서 우리 전 교육가족이 이러한 소망스러운 학교교육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 교육청, 학교에서의 지원행정은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교단을 정점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으며,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따라 각급 학교를 확충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원과 학생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꾸준히 힘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한 사람의 개인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상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보람을 찾는 학생과 교원이 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뜨겁게 신뢰받는 경기교육이 이룩되리라 믿는 바입니다.

오늘 본인은 교직의 반력로서 3만4천 교육동지 여러분의 한결같은 협조에 힘입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님과 내빈, 그리고 교육동지 여러분께 재삼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5월 6일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감 한 환